

## 淑明女大 아세아女性問題研究所

成 英 惠

(淑明女大 兒童福祉學科)

### 1. 設立 背景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구미를 휩쓴 여성 해방 운동과 유엔이 제정하고 선포한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는 세계적으로 여성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여성 문제로 거론되기 이전에 이미 숙명여대에서 여성 문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여자대학교에 알맞은 연구소 설치가 뜻을 둔 것으로 1960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그 당시 아세아는 세계의 초점이 되고 있었다. 아세아는 방대한 지역과 인구 그리고 오래된 역사의 유산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대화와 발전은 아세아 각국에 두 개의 주요한 도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국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아세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의 유교 사상에 기인한 여성의 사회 격리 제도는 본연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남성 본위의 제도로써 여성의 예속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전체 아세아의 문화

발전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세아 전체 여성의 복지를 위하여 여성에 관한 과거의 여러 제도를 연구·비판하고 장래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것은 여성만이 아닌 그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 여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아세아 전역에 걸친 여성에 대한 정치, 법률, 경제, 교육, 문화 및 실제 여성 생활에 대한 상호 이해와 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본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의 조직 체계는 역원으로 소장 1명, 간사 1명, 연구원 1명, 연구 조교 3명, 여성학 담당 조교 5명으로 구성된다.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내적으로 임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소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또한 연구소 평의원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전임 교수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소의 운영 방침, 예산, 결산을 심의하며 연구소에서 연 1회 발간하는 학술지「아세아여성연구」의 편집과 소장이 제안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회의 의원은 7인 이내로 하며 평의원회 의장은 본 연구소 소장이 된다. 현재 평의원회는 7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 2. 事業 內容

본 연구소에서 실행하는 사업의 성격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세아 여성 문제를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여성학 강의 주관, 여성 문제에 관한 학술지와 책자 간행, 간행물 번역, 연구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개최,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특별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 부설 도서관 자료실 설치 및 운영, 저명한 외국 학자의 초빙 및 연구위원의 해외 파견 등 학자 교류와 출판물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女性學 講義 運營實態 및 教育內容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사회 진출의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폐쇄되어 왔던 한국 여성들도 여성의 능력과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적·인격적 인간으로서 자아를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약 요인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학 강의는 여성들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자기비하적인 심리 또는 태도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발시키며,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여 사장되어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여성으로 하여금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방향 제시로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사회 성원으로서는뿐만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주체 의식을 가진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학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하에 숙명여대에서는 본 연구소 주관으로 1981년 2학기에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최근 여성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세계적으로 새롭게 확립되어 가고 있으

며 여성학 강좌를 정규 대학 과목에 편입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학은 그 역사가 짧아서 교수 방법 등 실시 내용이 학교 형편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여성학은 여성학 그 자체가 이론적 학문인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이므로 그에 적합한 강의 방법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그 강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1) 운영 실태

본 연구소는 1981년 2학기 교양 선택 과목으로 1개의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여성학은 매학기 개설되는 것으로 학생 수는 학기당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200명 정도이며 5명의 여성학 강의 담당 조교가 교수를 보조하며 20명 정도의 분반별 토의를 이끌고 있다. 여성학은 그 문제 제기가 사회의 전반과 학문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에 그 성격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성격을 띤다. 이러한 여러 학문간의 공통된 관점을 갖고 공통된 주제에 접근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의 연구 및 실천적 의식 함양이라는 견지에서 기존의 강의 방식과 다른 협동 강의제(team-teaching)와 토론을 통한 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성학은 그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내면화된 가치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교과과정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의 면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 가. 협동 강의제

협동 강의제는 분야가 다른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수 방법으로 여러 개의 반을 여러 명의 교수가 한 팀이 되어 강의하기 때문에 각 반마다 강의 내용의 순서가 다르다. 또한 각 반마다 담당 조교가 1~2명 담당하여 출석 체크 및 연구소와 학생간의 전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한다. 교과 내용은 <표 1>과 같이 이루어지며 매학기 강의 시작시 여성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여성학 강의 운영을 소개하고 여성학 전공 교수를 초빙하여 여성학 입문 강의를 듣거나 여성 관련 영화를 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학이란 무엇이며 왜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표 1〉 1989학년도 제 1 학기 강의안

| 구 분          | 3/8 | 3/15  | 3/22  | 3/29 | 4/12 | 4/19 | 4/26 | 5/3 | 5/10 | 5/17 | 5/24  | 5/31  | 6/7 | 6/14                       |
|--------------|-----|-------|-------|------|------|------|------|-----|------|------|-------|-------|-----|----------------------------|
| 여성운동의 이념과 배경 | 오   | 1반 1반 |       |      |      |      | 중    |     |      |      | 3반 3반 | 2반 2반 |     | 기<br>말<br>시<br>험<br>기<br>간 |
| 여성과 경제       | 리   | 2반 2반 | 1반 1반 |      |      | 간    |      |     | 심    |      |       | 3반 3반 |     |                            |
| 여성과 문학       | 엔   | 3반 3반 | 2반 2반 |      | 1반   | 시    | 1반   |     | 포    |      |       |       |     |                            |
| 여성과 법률       | 테   |       | 3반 3반 |      | 2반   | 험    | 2반   |     | 지    |      | 1반 1반 |       |     |                            |
| 여성과 사회       | 이   |       |       |      | 3반   | 기    | 3반   |     | 음    |      | 2반 2반 | 1반 1반 |     |                            |

강의 운영은 한 학기당 다섯 분야가 5명의 교수에 의해서 협동 강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리 준비된 강의 시간표에 의해 반별로 순서를 달리 하여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한 분야당 2주(4시간)로 이루어진다. 대개 여성학 강의의 여러 분야는 학기별로 약간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이 변화는 주로 여성학 수강생의 학기말 여성학 평가 설문 조사에 의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의한 것이다.

나. 토론반 운영

공식적인 토론반 운영은 여성학 강의에서 처음 실시하는 수업으로 운영 방법은 여성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토론반의 중요한 의의는 ① 강의를 통해 얻은 여성 문제들에 대한 사상과 이론을 현실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스스로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질을 발굴·향상시키며, ③ 대규모 클래스에서 갖기 어려운 동료들간의 토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고를 교환하고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강화시킨다.

다. 교육 및 운영 방법

모든 여성학 수강생을 10반(A1 A2, B1 B2, C1 C2, D1 D2, E1 E2)으로 나누어 소규모(1반에 18~20명)로 토론을 하며 여성학은 강의 2시간, 토론 1시간 3학점으로 이루어진다. 토론은 1시간으로는 절대 부족하기에 토론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학생들은 겨우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즉, 한 주제를 2회 토론하는데 첫 회는 A1, B1, C1, D1, E1 반, 두번째 회는 A2, B2, C2, D2, E2 반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토론 주제에 따른 자료를 읽고 토론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필독서와 참고 자료를 제시해 준다. 그 자료는 대학기 신간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 한 학기당 토론 주제는 5~6분야로 그 주제는 뒤의 〈표 2〉와 같다.

토론반 구성은 모든 수강생이 1반에 각 과별·학년별로 골고루 구성, 동일 학과 동일 학년이 편중되지 않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분반에서 선·후배 인식을 공고히 하며, 각 과별로 인식 방법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 내지 비교 등을 가능하게 한다. 토론반 진행은 여성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교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5명의 조교가 각각 1반씩 5반(1반을 2개로 분반)을 맡아 토의를 이끌어 간다. 여성학 담당 조교들은 매학기말 선발 공고를 통해 지원하며 연구소 임원진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학과의 제한없이 선발한다. 선발된 후 학기 시작 전까지 여성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여성학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전 스테디를 체계적으로 한다. 담당 조교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T.A로서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조교들의 역할은 토론반, 예를 들면 A1, A2 반을 이끄는 것으로 모든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모든 토론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교들은 이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주 정기 모임을 갖고 전 토의 주제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주제에 대한 토의 목표, 진행 방법에 대한 사전 스테디를 하며 학생들은 토론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레포트를 작성하여 토론 시간 후에 조교에게 제출한다. 조교는 이 레포트를 평가하여 다음 시간에 돌려준다. 토론 주제는 학기말 수강생의 여성학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및 여성학 조교 평가회를

〈표 2〉 여성학 토론 주제(1986.1학기~1989.1학기)

| 주 제                         | 1986 |     | 1987 |     | 1988 |     | 1989 | 비 고   |
|-----------------------------|------|-----|------|-----|------|-----|------|---|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
| ‘위기의 여자’를 읽고                | 1주제  | 1주제 | —    | —   | —    | —   | —    |   |
| 대중 여성의 사회 참여                | —    | —   | —    | —   | —    | —   | —    |   |
| 남녀 결혼관 비교                   | 4주제  | 4주제 | 4주제  | 4주제 | 4주제  | —   | —    | 남녀 인터뷰 및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를 읽고 토론   |
| 한국 여성의 역할 변천                | —    | —   | —    | —   | —    | —   | —    |   |
| 여성과 법률                      | —    | —   | —    | —   | —    | —   | —    |   |
|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벽은      | 3주제  | 3주제 | 3주제  | 3주제 | 3주제  | —   | —    | 학생들이 직접 설문 조사를 하여 분석·토론   |
| 왜곡된 여성상을 보여주는 매스컴 고발        | 2주제  | 2주제 | 2주제  | 2주제 | 2주제  | 2주제 | 2주제  | TV드라마, 영화, 광고, 가요 등등으로 나누어 조별로 조사·발표 및 시정 방안 모색   |
| 바람직한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과 나의 여성관    | 5주제  | 평가회 | 평가회  | 평가회 | 평가회  | 평가회 | —    |   |
|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읽고             | —    | —   | 1주제  | 1주제 | 1주제  | 1주제 | 1주제  |   |
| 근로 여성의 제문제점                 | —    | —   | —    | 5주제 | —    | —   | —    |   |
| 내가 경험한 성 차별                 | —    | —   | 5주제  | —   | —    | —   | —    |   |
| 한국 여성의 제문제 분야별 조사, 그룹토의     | —    | —   | —    | —   | —    | 3주제 | 3주제  | 중산층 여성, 빈곤층 여성, 근로 여성, 사무직 여성, 전문직 여성, 미혼모, 대중 여성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2~3개 주제를 선택하여 조사·발표 및 토론 |
| 결혼과 성 윤리                    | —    | —   | —    | —   | —    | 4주제 | 4주제  | 남녀 인터뷰 실시, 필독 도서를 기초로 남성과 공동 토론을 한다   |
| 자유주제 or 영화 ‘우리들의 연애’ 본 후 토론 | —    | —   | —    | —   | —    | 5주제 | 5주제  |   |

통해서 보완·조정한다. 이러한 강의 방식을 통한 여성학의 성적 평가 기준은 중간 고사 30%, 기말 고사 30%, 토론 참여 및 테포트 20%, 출석 20%로 평가된다.

여성학 운영에 있어 협동 강의제, 토론반을 통해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매학기 중반에 실시되는 아세아 여성 강좌 및 학기말에 실시되는 여성학 특강을 통하여 여성 활동의 현장에 있는 여성과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학자 등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여성 관련 영화를 학생들에게 상영해 주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시청각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여성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소 주관 여성학 강의 운영 실태와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성학은 교과 과정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의 면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반면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협동 강의제의 경우 각 교수별로 세분화된 영역별 강의로 학생들에게는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분야별로 2주 4시간이 할당되었기에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이 압축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지기 어렵고 강의 내용의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각 분야 담당 교수들 간의 강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성학적 관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성학의 학문적 성격에 일치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어 강의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분야별 담당 교수들 간에 사전에 많은 회의를 통해 일관된 여성학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강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하겠다.

둘째, 강의를 각 반별로 순서를 달리하여 행해지기에 여성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학에 대한 세부 영역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학생들은 여성학이 산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기초의 여성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왜 이 학문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협동 강의제로 인한 여성학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세째, 토론반 운영의 경우 여성학 수강생의 증가에 따라 소수의 적정 인원(한 반에 15명 정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학 조교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네째, 전반적으로 여성학은 그 기원을 미국 여성학에 두고 있는 만큼 서구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은 한국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학에 대한 학문적 깊이와 한국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여성학을 운영한다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현재 진행하는 여성학 강의외에 한 차원 높은 여성학 강의 또는 여성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여성학이 한 학기로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인 자극과 의식 개발 학습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남녀의 성 차별

해결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 조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수준으로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이러한 과목 개설이 요청된다.

## 2) 學術事業

본 연구소에서 수행한 학술 사업은 심포지움, 아세아 여성 강좌, 여성학 특강, 연구소 자체의 학술 연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심포지움의 경우 제 1 회의 행사는 숙명여대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1968년 '한국 여성 근대화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었다. 그 이래 1989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 2 회(1975)는 세계 여성의 해 기념으로 '여성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고, 제 3 회(1978)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방향', 제 4 회(1980) '북지 국가와 여성 문제', 제 5 회(1984) '한국 여성학의 전망 —국제심포지움—', 제 6 회(1986) '기술 발전과 여성', 제 7 회(1987) '정보화 사회와 여성 발전—국제심포지움—', 제 8 회(1989) '민주 사회 발전과 여성의 정치사회화' 등이 실시되었다.

여기서 도출된 논문은 그 주제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부합되게 정해진 바 여성 관계자, 여성학계 관련 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러한 심포지움 행사에 I. Tinker, S. Harding, P. McIntosh, M. Adams 등 저명한 여성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여성 연구자에게 학문적·실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심포지움은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기에 좀더 그 공간을 메우고 여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1973년 새로운 형식의 학술 행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그 명칭을 아세아 여성 강좌라고 칭하고 정기적인 학술 행사로 1년에 두번씩 봄·가을 학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아세아 여성 강좌는 1989년 현재 20회에 이르고 있는데 초기에는 각국 여성 문제(벨기에, 독일, 필리핀, 일본, 중국)를 다루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 발전에 따른 전문 분야에서의 여성 활동 및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소 자체의 연구로는 문교부, 대학, 각종 학술 제단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

다. 연구 영역으로는 한국 전통 사회의 여성(한국 여성상, 이조시대 여성, 근대 여성), 근로 여성, 고학력 여성, 전문직 여성, 기혼 여성(여성 유휴 노동력 활용)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아세아 지역 여성 연구로 중국 여성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연구로는 중국 현대화에 따른 여성 의식 변천에 관한 연구 및 여성 유휴 노동력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 3) 出版事業

연구소의 주요 사업으로 출판 사업을 들 수 있다. 연 1회 간행되는 학술지인 「아세아여성연구」는 1962년 1집을 간행한 이후 1989년 현재 28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28년이라는 연륜과 더불어 이 학술지는 국내·외에 잘 알려진 것으로 국내에 있는 각 도서관, 공공 기관 및 대학 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연구 단체에 보내지며 국제적인 학술 교류와 국제적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구주 등의 연구 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 보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술지를 받는 기관에서는 자료 교환의 의미로 그들이 간행하고 있는 간행물을 교환하고 있다. 본 학술지의 내용은 여성 관련 의 정치·경제·법률·문학·과학·역사·문화·언어 등 각 방면에 걸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시대적으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한국, 일본, 중국, 아랍,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의 여성에 관한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단행본으로는 한국 여성 연구 총서; 1집 이조 여성 연구, 2집 근대 여성 연구, 여성학 교재로 「여성학」 등이 있다. 또한 영역본 *Women of the Yi Dynasty*는 한국 여성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과의 외국 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소는 본교 중앙 도서관과는 별도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

학술지 900여 권, 국내 학술지 850여 권, 국내 단행본 2,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실은 숙명여대 학생 이외에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여성 관련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4) 事業計劃

지금까지 기술한 연구소의 제반 사업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재정은 어려운 여건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사업 과제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주관해 온 여성학 강의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학생들의 여성학에 대한 관심에 좀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소는 1973년부터 여성 문제를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논문을 「아세아여성연구」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는 여성 문제 연구가 연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 연구를 장려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앞으로는 여성 연구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의 지평을 넓히고 아세아 여성 문제에 관한 더욱 알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비 수혜 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사업에 있어서는 아세아 전역에 걸친 여성의 여러 문제를 조사·연구한다는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한국 여성 연구 외에도 아세아 여성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 첫 단계로 중국 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아세아 여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계속적인 투자와 연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